

예배순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목상기도 ————— 다 같이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시117:1)

찬 송 ————— 34장(통40) ————— 인도자

신앙고백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흠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33-137(약 90면) ————— 다 같이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
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설 교 ————— 연합의 은혜 ————— 인도자

명절을 맞아서 시골에 내려가려고 하면 큰마음을 먹고 내려가야 합니다.
연휴나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나 국도 할 것 없이 차들로 꽉 들어차서 꼼짝
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고로움과 큰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려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
로 만남에 대한 기쁨과 기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
로나로 인해서 이 만남 자체도 제한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이나 목소
리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
지, 우리가 당연히 했던 것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되다’, ‘같이하다’, ‘한마음이 되다’, ‘합하다’로 해
석이 됩니다.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 그래야 서로가 안전한
세상에서 하나 되고 같이하며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가까
움이나 거리의 가까움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연합을 말해줍니다.

함께 얼굴을 보며 식구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 이상의 것. 지체들의 영적인 연합과 동거에 대한 아름다
움에 대해 감탄합니다.

추석은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
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
사하는 날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우리는 함께하고, 연합하며, 하나 되어 아름
다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시편기자는 그 연합과 하나 됨, 그 아름다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이 풍성하
여서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까지 흐르고 계속해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혈몬(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시온에 풍족한 시내를 이루어 흐르듯이 진정한 연합과 하나 됨은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통한 연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연합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니다. 샬롬!

기	도	_____	인 도 자
찬	송	_____45장(통42)	인 도 자
주님의 기도	_____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 시간 _____ 다 같 이

※ 예배 후에는 가족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